

“스카치 송호 전복·바지락 술빚 너무 맛있어요”

전남도·어촌특화센터·청년셰프 함께 피서객에 특화음식 제공
해남 송호·함평 돌머리서 ‘남어진담’...8월 2일 보성 울포서

“이 정도 음식이면 맛있는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겠네요. 어린이들이 적절 잡은 싱싱한 수산물로 지역 청년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어줘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에서 해남 송호해수욕장으로 피서를 온 김성미(여·42)씨는 이봉선(43·동강대 호텔조리영양학부교수)·오명진(32·광주요리학원장)·남예니(여·32) 셰프 등이 공동개발한 ‘스카치 송호 전복’을 맛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스카치 송호 전복’은 전복 반마리를 어묵으로 감싸 튀긴 간편식이다. 젊은층을 겨냥해 전복 튀김요리를 선보였다. 이날 이 셰프 등이 준비한 180인분은 15분만에 동이 났다.
오 셰프는 “어린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구성했으며, 누구나 전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맛을 냈다”며 “이번 행사가 어린 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청년 셰프들은 ‘바지락 술빚’을 선보였다. 바지락의 비린 맛을 알싸한 양념, 버터 등으로 잡아 최근 젊은층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이다. 250인분을 준비해 굶은 날씨에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접했다.
손흥주 함평 석두어촌계장은 “장어잡이 행사에 참여한 피서객들에게 지역에서 나온 바지락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대접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정식 명칭은 ‘남어진담(南魚珍談. 남도 어촌의 진미를 담다)’으로, 전남도, 해남군, 함평군과 전남어촌특

화지원센터, 사단법인한국조리사협회 광주전남지회가 함께 마련했다.
오는 8월 2일에는 보성 울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석간어촌계와 함께 제3회 남어진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연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은 “전국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수산의 보고 전남 어촌이 더 잘 살고, 어린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어촌의 특화 발전이 결국 귀어를 늘리고, 전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27일 오전 해남에서 열린 ‘스카치 송호 전복’ 시식회에서 음식을 맛보고 있는 피서객들.



27일 오후 함평에서 열린 ‘석두 바지락 술빚’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피서객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신안 천사대교를 방문해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지난 4월 개통한 천사대교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평화의 섬 하의도 연결’ 연도교 건설 건의

김영록 지사, 김현미 장관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천사대교 점검차 전남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평화의 섬 하의도 연결’ 연도교 건설 등 기반시설 관련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6일 천사대교를 방문해 교량 흔들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익산지방관리청 측은 천사대교 진입 국도 개선, 예비타당성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아해-화원, 화태-백야연륙·연도교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천사대교의 흔들림 현상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은 교량 직각 방향으론 특정 속도(6~11%) 바람이 불 때만 교량 측면에서 회오리바람이 발생해 도로 이용자가 흔들림을 느끼는 것으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지방관리청 측은 제2진도대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해 재진장치를 설치, 흔들림 현상을 막은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9월까지 천사대교에 재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블루이코노미 핵심인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완성을 위한 ‘평화의 섬 하의도 연결(신·장산 연도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안도-고흥 간 해양관광도로 건설’ 등 7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천사대교 점검에 이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드론, 로봇, 특수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특수교 점검 시연회를 참관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종합상황실과 관제탑 등 공항 시설을 둘러봤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기점으로 서남권 관광 거점이 될 것”이라며 “2025년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5일 김준성 영광군수, 이장석 전남도의원, 강필규 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울 들어 다섯 번째로 영광 법성면 산하치마을을 주민 및 대마산단 블루이코노미 기업인들과 민박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종합계획 구축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 용역 1차 중간보고회

전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다. 이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에 나서는 한편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8일 “지난 26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생산유통, 안전·건강 먹거리, 먹거리 복지, 먹거리 자원순환의 4개 분과로 구성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복지시설, 가공·유통조직, 행정, 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

여해 보완 사항을 토론했다.
전남도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22개 시·군 먹거리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해 먹거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및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 연계 시스템을 통해 먹거리 공급과 수요, 관계시장 확대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과거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 중심의 농정에서 소비를 포함하는 먹거리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먹거리 공급 및 수요 주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생산, 소비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 내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안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남 바다 한눈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어장 관측 등 검색 앱 개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연안해역의 수온 등 해양환경 관측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남바다알리미’를 개발해 공개한다.
28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전남바다알리미’ 앱은 전남 해양 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국립수산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및 기상청 등 각 기관에서 관측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위젯 기능인 ‘전남바다알리미’에서는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폰 설치 프로그램인 ‘Play 스토어’ 등을 통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어업인이 이 위젯을 활용하면 해양 환

경에 따라 양식생물 씨붙임(채묘) 시기, 먹이 공급과 출하 시기 등을 판단해 수산물 생산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태풍이나 고·저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히 대응하게 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오광남 원장은 “어업인을 상대로 한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어업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5일 국립수산물학원과 실시간 어장관측 시스템 연계와 활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남 시범 해역 7개소의 연계작업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전남 195개소에 관측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1회 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 성료

여수 웅천해변서 이틀간 열려

전남도와 여수시가 해양레저스포츠를 대중화하고 피서철 관광객의 불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제1회 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1회 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해양관광 휴양의 명소인 여수 웅천해변에서 선수단, 가족, 시민과 내외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잇은(Sit On)카약, 잇인(Sit In)카약, 스탠드업패들보트(SUP), 드래곤보트 4개 종목으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청소년부와 혼성전 등 총 15개 경기

가 펼쳐졌다.
대회 첫날인 27일 잇은·잇인 카약 경기를 치른 후, 웅천해변 공원에서 댄스가수 공연, 합창단, 색소폰 버스킹 등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해양페스티벌이 진행됐다. 28일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한 스탠드업패들보트와 드래곤보트 경기가 열려 임원진과 가족들 간 뜨거운 응원전을 펼쳐 색다른 재미를 안겨줬다.
대회 기간 중 ▲무료 요트·보트체험 ▲해양안전사고 예방 생존수영과 심폐소생술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물놀이 풀장 ▲패션 팔찌 만들기 및 패션타투 체험 등이 운영돼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